



이름 _____

체키가 다시 쓴 댕글에 토리의 눈이 별이 됐어요. 한 줄의 말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럼 네 한 줄은 누구에게 닿을까?

보내기 짝의 작품에 나만 쓸 수 있는 칭찬 한 줄

- 1 선생님이 정해 준 짝의 작품을 천천히 봐요. 그림, 글, 만들기 무엇이든 좋아요. 짝 이름: _____
- 2 흔한 칭찬을 나만 쓸 수 있는 칭찬으로 바꿔요.

흔한 한 줄	나만 쓸 수 있는 한 줄
«잘했어!»	_____ 부분이 _____ 해서 좋아.
«멋져!»	보고 나도 _____ 해 보고 싶어.

- 3 건네기 전에 확인해요.
☐ 짝 작품의 진짜 한 부분을 말했다 ☐ 내가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다
- 4 쪽지에 옮겨 써요. 선을 따라 오려서 건네요.

_____ 에게

_____ 가



나

우리 집

우리 반

우리 동네

내보내기 칭찬 쪽지를 짝에게 직접 건네요. 쪽지를 받은 짝의 얼굴은 어땠나요?



누가 나에게 해 준 말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말은?

좋은 말이어도, 아팠던 말이어도 괜찮아요. 안 적어도 돼요: _____

EP22 댓글의 무게감

이 활동에서 일어나는 리터러시

사건 → 실천

«댓글 조심하자» 다짐으로 끝내지 않고, 짝에게 **받는 사람이 있는 글**을 직접 건넵니다. 받는 얼굴을 보는 것이 댓글과 다른 점이자 배움이에요.

장르

쪽지는 얼굴을 보고 건네는 글, 댓글은 얼굴 없이 닿는 글이에요. 건넨 뒤 «댓글이었다면 짝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?»로 견주어 보세요.

누구의 목소리

모든 아이가 한 장씩 받도록 짝을 정해 주면, 평소 칭찬받지 못하던 아이에게도 목소리가 닿습니다.

→ 진행 흐름 (한 차시 40분)

5분

영상 보기

EP22 1분. 체크가 댓글을 지우고 다시 쓰는 장면에서 멈춰 «뭐가 달라졌지?»

10분

짝 작품 보기

미리 걸어 둔 반 작품 중 짝의 것을 천천히 보기.

20분

1~3번 + 건네기

흔한 칭찬 → 나만 쓸 수 있는 칭찬. 쪽지로 직접 건네고 받은 얼굴 나누기.

3~4학년이라면

반 밖으로

좋아하는 작가·만든 사람에게 보호자와 함께 손편지나 메일 보내기. 다음 시간에 «답이 왔는지» 나누기.

영상 마지막 나레이션을 바꾼다면

지금: «댓글 한 줄도 누군가에게 돌맹이가 될 수 있어요. 보내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?»



제안: «토리의 눈이 별이 된 건 어떤 한 줄 때문이었을까요? 여러분의 한 줄은 누구에게 보내 볼래요?»

«돌맹이» 경고는 말하지 않아도 영상이 이미 보여 줬어요. 끝은 아이가 할 일로 열어 둡니다.

⚠️ 조심할 것

- 짝은 선생님이 정해 주세요. 한 아이에게 물리거나 아무도 받지 못하는 아이가 없게.
- 반 밖으로 보낼 때(3~4학년): 만 14세 미만은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혼자 계정을 만들 수 없어요. 보호자 계정·손편지로, 이름·학교·사는 곳은 쓰지 않아요.
- «아팠던 말»을 적은 아이가 있으면 발표시키지 말고 따로 살펴 주세요.

이어서 쓰기

- 52화 «창작의 기쁨»의 «어디가 좋았는지 말해 주기»와 같은 칭찬법이에요. 반 작품 전시 때 다시 씁니다.
- 29·74화: 동네 가게에 쓰는 진짜 리뷰로 넓히기.